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형된 집단적 마음: 〈내조국 빛내리〉를 중심으로

Collective Minds Formed through North Korea's Documentary Films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Focusing on 〈Let Us Hold High the Red Banner!〉

김 승*, 이우영**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Seung Kim(offtoon@konkuk.ac.kr)*, Woo-Young Lee(wylee@kyungnam.ac.kr)**

요약

현재적 관점이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충분히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집단적 마음을 형성시키기 위해 기록영화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인민에게 영웅적 환타지의 주인공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한 정신력으로 고난을 돌파한 모범 사례들을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패배주의를 경계하고 승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미 닦쳐온 경제문제의 돌파구로 집단적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주민의 동질적 마음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도덕성의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경험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집단적 의식의 발현으로 비록 현실은 고단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길로 전환시킬 것을 역설하고 있다.

■ 중심어 : | 북한 기록영화 | 북한영화 | 북한 문학예술 | 고난의 행군 | 집단적 마음 |

Abstract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North Korea overcame its crisis situation of the regime, the Arduous March. What was the driving force, enabling the regime to overcome the situation that could have been collapsed? 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to what strateg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ok to unite the social minds through its documentary films in the midst of the national cri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ary films emphasize that the people should become heroes in heroic fantasies. These films present the model cases, in which the people break through the hardships with their strong willpower, as an answer. Second, they mind the defeatism and encourage the triumphalism. They stress the importance of uniting collective minds as a breakthrough in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Third, they place an emphasis on creating the harmonized minds. They repeat the recovery of communistic morality, which has been emphasized up to date.

Collective minds are eventually the outcome obtained from social experiences. North Korea stresses to convert the arduous march into the march to the paradise by the creation of collective minds through documentary films even in difficult realities.

■ keyword : |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 | North Korean Film |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 | Arduous March Collective Minds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571).

접수일자 : 2016년 03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22일

교신저자 : 김승, e-mail : offtoon@konkuk.ac.kr

I. 서론

넓은 의미에서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총체적 체제 위기 기간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를 뜻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하여 지배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혼란기를 맞이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속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북한은 온 국가가 초토화된 한국전쟁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었다[1].

물론 현재적 관점이지만 북한은 이 위기상황을 넘겼다. 충분히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왔다. 이들 연구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거시적 논의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일상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북한 사회의 행위 주체, 즉 북한 주민의 행위 원천인 사회적 실정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과 같이 정치적 영역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주민의 집단적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사건의 단층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기록영화를 통해 조형됐을 북한 주민의 집단적 마음을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시대의 마음은 그 세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마음을 뜻한다. 특정 세대가 구성하는 세대적 마음은 각 사회에서 그 세대가 위치한 시공간의 맥락과 깊게 연관된다[2]. 김홍중(2015)은 특정 시기의 이데올로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이 시기만의 사회적 마음과 마음가짐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3]. 이런 맥락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특정 시기의 정체성을 마음이라는 맥락으로 살펴보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과 그러한 사회적 마음의 설정 배경이 되는 공유된 규범의 집단적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내조국 빛내리>는 1998년 조선 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고난의 행군의 간고함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록영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의 마

음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기록영화와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 사회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징의 하나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내조국 빛내리>가 어떤 시퀀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편집의 방향과 분위기 등을 살펴서 그 의미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집단적 마음을 형성시키기 위해 기록영화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또 이러한 마음이 또 다른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원리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북한은 극영화에 비해 소규모 장비로 제작이 가능한 기록영화(documentary)를 정권 초기부터 이데올로기 선동 수단이자 대중 교화용으로 적극 활용했다. 현재 북한의 기록영화는 수령의 혁명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적 현실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재현하는 역사의 증언자로서 역할을 한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국가주도의 선전 선동의 도구로, 즉 대중의 이념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기록영화가 당의 중요한 사상교양수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락원으로 꽃핀 우리 조국의 모습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내외에 널리 소개선전하게 됩니다[4]”라고 했다. 『조선중앙년감』(1962)에서는 기록영화를 ‘형상화된 신문’으로 장르적 정의를 내렸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체제 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의 기록영화’ 이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체계를 만들었다. 그들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라고 평가하는 이 이론에서는 북한 기록영화의 기본 사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우리 당의 력사를 수록하는데 있다는 사상은 우리 기록영화의 사명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5]”라고 주장한다. 북한

에서는 기록영화 제작에서 진형화를 요구하다보니 서구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된 별도의 이론을 구축했다.

이 이론에 대해서 북한은 기존 이론을 수정·보완한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이론은 정립되지 않은 채로, 때로는 담론을 제작자의 이해요구에 따라 조합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국가주도의 다큐멘터리 이론은 체계모니를 움켜쥔 집단의 이해요구에 맞춰 재정립됐다. 나치 독일의 경우에도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문화영화’라고 칭하고, 그들 고유의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의 기록영화 이론이 특별하기는 하지만 독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III. 연구방법

프로프(Владимир Пропп)는 영상텍스트에 대한 서사구조 분석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러시아 민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100편의 러시아 민담연구에서 정형화된 인물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사구조 속에서 기능(function)하고 있음을 밝혔다[6]. 프로프가 시도했던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에 대해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들의 연쇄로 보는 관점으로, 그의 기능 개념은 모든 텍스트들에 적용될 수 있다[7]. 이 분석방법은 텍스트의 중심주체의 흐름과 중심 전환점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기록영화의 서사구조 파악을 위하여 이야기의 연결 구조를 밝히는 통합체 분석을 행하였다. 수많은 영상과 음향의 결합체로 배치된 기록영화에 대한 통합체 차원의 분석은 서사의 구성단위인 시퀀스 차원에서의 탐색을 의미한다[8]. 즉,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를 특정한 서사체로 구성된 사건들의 연쇄로 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 통합체 분석은 프로프의 인물구조 모델을 활용했다. 이는 시퀀스 전개에 따라 핵심사건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통합체 분석에 더하여 영상구성요소를 파악했다. 영상구성요소 분석은 래비거(Michael Rabiger)의 다큐멘

터리 구성요소 분석을 차용했다. 그는 다큐멘터리의 구성 요소가 크게 영상과 음향으로 나뉜다고 봤다. 영상요소로 자료화면은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재연은 과거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연출한 화면이다. 그 밖에 문서, 타이틀, 컴퓨터그래픽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음향요소는 내레이션과 보이스 오버, 현장음, 효과음, 배경음악 등이 있다[9].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기록영화를 영상과 음향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통합체 분석

1998년 북한은 영화예술부에서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기 위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고무하는 영화 창작을 독려했다. 그 결과, 기록영화부문에서는 40여편의 다양한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다[10]. 주요 내용은 김정일의 위인적 품모와 혁명 업적을 보여주는 기록영화들과 자강도에서 펼쳐진 중소형발전소 건설 투쟁이다. 이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해 나가자는 시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내조국을 빛내리>는 3권 분량의 주제기록영화이다. 주제기록영화는 창작가가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배치하여 만드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11]. 즉, 주제기록영화는 일정한 사상적 과제를 가지고 현실 자료와 사실들을 수록한 영화이다. 따라서 주제기록영화는 이미 설정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서사구조를 띤다.

프로프의 통합체 분석으로 사건의 중심 전환점별로 시퀀스를 분석한 결과, <내조국을 빛내리>는 총 8개의 시퀀스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에 해당하는 시퀀스 1에서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고, 수령은 곧 어머니 조국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승’ 시퀀스 2, 3, 4에서는 조국의 시련이 닥쳤을 때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인민은 수령만을 믿고 따르고 수령은 인민을

믿는 일심단결의 기풍으로 진군한 승리의 역사였음을 재현하고 있다. ‘전’ 시퀀스 5, 6, 7에서는 역사의 대시련 기를 맞아 맨주먹의 자력갱생 혁명정신과 수령결사옹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통해 극복했다고 전한다. 마지막 ‘결’에서는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닌 인민이 있는 한 세상이 변한다 해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길로 빛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조국을 빛내리>의 시퀀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구분	시퀀스	주요 내용
기	1	김일성 민족의 탄생
		↓
승	2	한국전쟁의 승리
	3	시련을 이겨낸 선구자들
	4	세상 높은 곳에서 빛나는 조국
		↓
전	5	역사적 대시련기의 도래
	6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
	7	대중적 영웅주의의 불사조들
		↓
결	8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자

그림 1. <내조국 빛내리>의 시퀀스 분석

이와 같이 <내조국 빛내리>의 서사구조 방식은 논증과 설득을 반복하는 전형적 수사적 구조(rhetorical structure)를 띠고 있다. 즉, 관객에게 역사적 성공 신화를 상기시키면서 사회주의 혁명완수에 동참할 것을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다. 고유한 상징화를 통해 형성된 심적 차원을 조형하는 이야기는 집단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 아장스망(agencement)으로 작동한다[12]. 분석대상에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면서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의미를 배태하고 있다.

2. 영상구성요소 분석

2.1 영상요소 분석

라비거의 영상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내조국 빛내리>에서는 기록영상이 전체의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현장화면 40.16%, 구

성화면 10.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록영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록영상이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타임코드(time code)는 CTL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내조국 빛내리>의 영상구성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내조국 빛내리>의 영상요소 비율

구성요소	기록 영상	현장 화면	구성 화면	합계
Dur.(사:분)	13:29	10:55	02:47	27:11
비율(%)	49.60	40.16	10.24	100

기록영상은 역사적 기원을 지닌 특별한 흔적이다. 기록영상 내에 수록된 영상은 지표적(indexial) 기능이 강하다. 분석대상에 주로 사용된 화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도도 화면과 전쟁화면, 역사자료 등이다. 기록영상은 대부분 변형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영상은 사실 전달에 충실했다. 이를 통해 건국 후 50년 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뚫고 나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면 1]은 건군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강건이 젊은 나이에 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니고 한국전쟁에서 용감 무쌍한 활약을 펼쳤다는 기록영상이다. 영웅의 형상을 통해 당시를 살아가는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바람직한 상(像)을 제시한 것이다. 행위의 실천 주체는 공동체의 도덕적 지평에 하나의 모형으로 정립되고 다른 대상들에게 도덕적 압력을 행사한다. 주민은 이 전형이 행사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향(定向)할 수 있는 규범적 나침반을 발견하게 된다[13]. 이는 시련을 이겨낸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마음의 중심에 새 형(形)의 인물 전형형을 창조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화면 2]는 자폭정신으로 최고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영웅들에게 화답하는 김일성을 재현한 것이다. 북한은 영웅이 많은 나라이고 신념의 강군이 대하(大河)처럼 굽이치는 무적필승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모든 인민은 변심을 모르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만을 받드는 견결한 옹호자가 되기를 독려한다. 집단을 위한 대중적

영웅주의의 발현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집단주의’일 것이다. 북한은 집단 사상을 중히 여기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처럼 강제적 평준화를 구현해 왔다. 그런데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서 집단주의는 긴장되고 개인주의적인 유대로 회귀하려고 했다. 북한은 수령(김일성)을 집단적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시대 정신을 통합하고자 했다. 비록 수령은 사망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을 수령 형상을 통해 새로운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순응하게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화면 1



화면 2

현장화면은 의미를 당연시(naturalizing)하게 하는 장치로, 필요에 따라 현재 모습을 촬영한 화면이다. 수용자는 현장화면의 제작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은 수용자에게 자명한 사실로 소개된다. 분석대상에서 현장화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기록영화가 주제기록영화로 실제 상황을 필요에 따라 촬영했기 때문이다.

[화면 3]은 도입부의 깃발이고, [화면 4]는 ‘결’의 깃발이다. 이처럼 현장화면 중 깃발을 통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 구성은 상정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다. 즉, 대중들에게 문제제기와 결론을 일치시켜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바를 편향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주제 부각에는 효과적이지만 열린 결말의 가능성이 차단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텍스트를 해독할 때 논란의 여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균열이 시작되고 국가에 대한 주민의 순응력이 저하될 때 사회적 기강은 이완된다. 사회주의 정권의 생존력은 개인주의 응집성을 분쇄할 수 있

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때 휘날리는 깃발은 하나의 상징체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종의 동기부여로 호소된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희망 제시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승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화면 3



화면 4

구성화면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화면으로 역사사진과 조선화, 그리고 컴퓨터그래픽 등이 주로 사용된다. [화면 5]에서는 리수복 영웅이 남긴 “나는 해방된 조국의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중간자막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중간자막이 “선동성과 호소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씨가 힘이 있고 뚜렷해야 작품의 주제 사상을 더욱 강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14]”고 보고 있다. 이 화면에서는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죽음의 형식을 통해 사회적 희생과 보상이라는 사회주의적 삶의 형식을 절합(節合)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낸 청년 세대들은 최악의 식량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세대적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생존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생물학적 마음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규범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15]. 과거의 순응적 가치는 자취를 감추고 기존의 가치체계를 깨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점을 경험한다. 북한이 [화면 5]와 같이 시대정신으로 영웅 청년 따라 배우기를 들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도 청년의 레짐(regime) 이탈은 곧 체제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일종의 진정성을 청년의 가치로 구축하여 개인의 행복추구를 죄악시 하고 있다.

[화면 6]의 조선화(朝鮮畵)는 이름 없는 영웅의 투쟁을 담은 삽입화면(insert)으로 사용됐다. 북한 기록영에서 삽입화면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깃발, 현수막, 기념비미술 등을 삽입하여 감정선을 보충하고 상징의

미를 표출한다. 이 조선화는 미제의 침략에 맞서 고지로 전진하는 군인의 인상을 형상화하여 호소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화면은 동영상의 흐르는 도중에 정지 구성화면을 사용하여 화면 속 장면엔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다. 즉, 미제라는 타도 대상을 단결의 이항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외부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단의식 고취를 위한 시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시기의 위기를 경제난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배주의의 확산이 더욱 염려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총포성 없는 전쟁’ 즉, 사상전으로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만들어냈다. 이는 북한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중심으로 주민의 마음을 정치사상적으로 혁명화하려는 의도이다.



화면 5



화면 6

북한 영화예술에서 편집은 형상적 판단을 통한 예술적 일반화의 방법으로 인식된다. 즉, 편집을 통해 생활에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려내고, 화면들에 담긴 사건들이 맞물려 전일적인 형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분석대상은 이러한 편집의 전형을 보여준다. [화면 7-1]에서는 경제적 난관과 자연재해의 실상을 보여 주고, 물난리 속에서도 공화국의 품속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전한다[화면 7-2]. 이어서 아이들의 미래가 김정일의 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순으로 편집하고 있다[화면 7-3]. 이렇게 상황설정을 통한 말걸기는 선동자로서 관객을 길들이고 예정된 결론에 맞는 증거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동요하는 주민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표상조작을 통해 긍정의 아이콘으로 최고지도자를 내세우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화면 7-1



화면 7-2



화면 7-3

2.2 음향요소 분석

<내조국 빛내리>에서는 효과음, 배경음악, 내레이션 등의 음향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영화에서는 영상이 사운드를 대체로 지배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음향요소는 잠재적 차원에서 작용한다. 특히 효과음은 영화의 맥락에 따라 중요한 상징 기능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음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텍스트 전체의 맥락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는 김일성에 환호하는 함성, 치열한 전투상황을 전하는 포탄소리, 시련을 극복했다는 폭죽소리 등을 맥락에 맞춰 효과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배경음악은 전체적으로 튀지 않게 믹싱하고, 군가풍의 배경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은 화면 보조의 기능을 넘어 긴장감 조성과 분위기 유도의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전’ 부분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표현하면서 <적기가>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적기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노래는 김일성에 의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작되었다고 주장된다. 언어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배경음악이 가사와 융합될 경우 음악은 구체적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 노래의 “비겁한 자야 갈라만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킨다”라는 가사를 통해 혁명적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즉, 배가 고과 비겁한 자들이 모두 떠난다 해도 혁명하는 사람들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결’의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합창 형식으로 역사적 위기 앞에 인민들이 일심단결로서 역정을 순정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집합심리의 기능 중 하나인 주체의 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준다. 주체의 산출 과정은 순응하는 주민을 양성하고, 이는 통치성으로 구현된다.

서구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선에 해당하는 북한 기록 영화의 해설은 영상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설은 이야기 전개 수단이자 창작가의 '주정도로'를 표현한다.

<내조국 빛내리>에서 해설자는 웅변조로 대본을 읽어 가고 있다. 기운찬 웅변의 목소리는 수용자에게 이미 준비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당파성을 띠게 된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시비를 깨닫게 해주는 제작자의 목소리이다. 이 기록영화에서의 목소리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사회적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시퀀스에 따라 해설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번갈아가며 바뀌고 있다. 남성 해설자는 대체로 힘찬 웅변조로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전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반면 여성 해설자는 부드러운 감성조로 역사의 상흔을 상기시키고 혁명적 낙관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의 감정선은 웅변적 호소에 더하여 관객의 동의를 쉽게 구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북한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력적으로 주민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 기록영화를 통해 선전 전략을 펼쳤다. 유일지도 체제에서 민심이란 곧 체제 전복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체제 전환은 경제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 동인은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의 북한 주민은 집단주의에 의거해 당과 국가에 순응해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 의식에 입각한 전형을 창출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체제 순응적인 주민들에게 마음의 균열이 생겼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형된 집단적 마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통합체 분석과 영상구성요소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인민들이 영웅적 환타지의 주인공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모범 사례를 호명하고 수령중심의 충신이 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시대적 격변기마다 영웅 창출을 통해 대중 의식을 조작해 왔다. 강한 정신력으로 고난을 돌파한 모범 사례들을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시대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욕망의 응집력을 모범 사례의 공동체 체험에서 찾고 있다.

둘째, 패배주의를 경계하고 승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시련이 지속되더라도 최고지도자만 믿고 따르면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재현하고 있다. 북한이 기록영화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주민의 의식전환이다. 승리의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동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이미 닦쳐온 경제문제의 돌파구로 집단적 마음의 통합을 강조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

셋째, 주민의 동질적 마음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눌 수 있는 재화의 한정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로 전이된다. 전이된 공포를 탈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집단 우선의 지배담론 유포를 통해 더 이상 개인주의적 발상이 사회적 동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겁한자야 갈테면 가라"라는 수사를 통해 배신자의 아이콘을 생성하고 있다.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도덕성의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였다. 북한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었다. 집단적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경험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내조국 빛내리>에서는 시각적 충격 -> 치밀한 논증 -> 집단주의의 발현을 통해 비록 현실은 고단하지만 더 어려웠던 시기를 추억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종교적으로 사회적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착각적 통제감'으로 인하여 '인고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길로 전환시키자는 의미를 배태하고 있다.

의식주 문제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이 분명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혁명적 군인정신, 그리고 선군정치라는 일련의 담론구조를 통해

집단적 마음의 결의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 시기와는 달리 혁명적 열기가 소진된 상황에서 도덕적 자극에 호소하는 방식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공포에 몰렸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능가하는 그 무엇을 남겼을 것이다.

북한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국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마음이 필요했다. 변화를 추동하고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마음가짐은 조국과의 운명공동체를 표방한다.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정치적 생명으로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객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동요와 혁명성 탈각을 방지하기 위해 이기주의 태도에 대해 계몽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갑식, 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pp.91-115, 2004.

[2]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pp.6-40, 2014.

[3]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제49권, 제1호, pp.179-212, 2015.

[4] 김정일, *김정일선집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 리현순, *사회주의영화예술건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6]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7] 아더 아사버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옮김,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이론과실천, 2000.

[8] 서명수, “영화에서 환유와 은유,” 기호학연구, 제6집, pp.205-237, 1999.

[9] 마이클 래비거, 조재홍, 홍형숙 옮김, *다큐멘터리*, 지호, 1998.

[10]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9.

[11]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2]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한국사회학회, 제48권, 제4호, pp.179-213, 2014.

[13]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5.

[14]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5]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pp.6-40, 2014.

[16] *광명백과사전 6권*, 백과사전출판사, 2008.

저 자 소 개

김 승(Se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북한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주식회사 예인미디어 대표이사
- 2011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북한 문학예술, 다큐멘터리

이 우 영(Woo-Young Lee)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사)
-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1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북한사회문화, 지식사회학